

세계 교회 지도자, ‘제자훈련으로 성도의 삶 변했다’ 77%!

세계 선교와 복음주의 신앙의 지형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2025년 10월 27일부터 31일 까지 개최한 WEA 서울총회(사랑의교회)에서 <세계복음주의 전망 연구조사 보고서(2026.06.)>를 발간하였는데, 이 조사는 한국 교회가 주관하여 세계 각국의 기독교인 및 리더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글로벌 조사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의미를 가진다.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신앙 인식과 선교 현장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글로벌 복음주의 신앙의 오늘과 내일을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지표를 마련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도의 역설’이다. 종교 자유가 높은 선진국 지역보다 오히려 종교적 제약과 박해가 심한 지역(87%)에서 전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음주의 지도자의 90%가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훈련을 받은 성도 삶에 실제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응답도 77%에 달했다.

이번 <넘버즈 345호>에서는 세계복음주의 교회의 연령 구조와 종교 자유도부터 현장의 전도 장애물, 제자훈련의 성과, 사회 참여의 현주소까지 다각도로 짚어보았다. 본 보고서가 글로벌 사역지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세속화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함께 나아갈 본질적인 목회·선교적 전략을 모색하는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는 개신교를 기독교로 천주교는 가톨릭으로 기재합니다.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주의 전망 연구 조사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WEA(세계복음주의연맹) 총회 회원(복음주의 목회자, 신학자, 평신도 등)
표본 규모	총 494명(유효표본) : 전세계 154개국 중 91개국 참여
조사 방법	모바일/온라인 조사
표본 추출	전수조사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5년 9월 12일 ~ 2025년 10월 31일 (WEA 총회 전부터 총회 개최일까지)
조사 주체	WEA 서울총회(사랑의 교회)
조사 기관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방법]

본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총 3단계의 분석을 실시하였음.

- 1단계: 나라별·대륙별·참가자 교단별·직분별·성별 등 주요 변수 기준으로 ‘응답자 특성별’로 분류함
 2단계: 군집분석을 활용해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국가들을 총 ‘네 개의 지역 유형’으로 분류함
 3단계: 군집별 빈도 분석을 검토하여 각 지역 유형의 특성과 성격에 맞게 국가들을 분류함

[표1] 지역 유형을 나누기 위해 사용한 3개의 차원(Dimension)과 14개의 지표(Indicator)

차원	지표
종교 자유	종교 자유 수준
전도	전도 활성화
복음 전파/전도 방해 요소	종교 자유 제한
	정치/법률적 제한
	사회 문화적 반대
	기존 종교의 강한 영향력
	재정/인력 부족
	교인들의 전도 의지 약화
	언어 장벽
	국가의 디지털/미디어 검열
	안전/보안 위협
	세속화/탈종교화
	종교다원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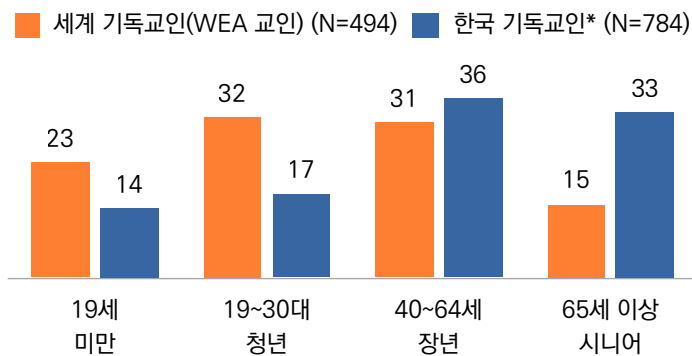
[표2] 최종 도출된 4가지 지역 유형

지역 유형별	특성
〈지역 유형 1〉 안정된 정체지역	이 지역은 극단적인 어려움은 없지만 영적 활력도 높지 않아 현상 유지에 머무르는 환경을 가진 국가들임. 이 환경은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간 지대에 위치함. 극심한 박해나 제약은 없으나, 신앙의 열정과 전도 활동 또한 중간 수준에 머물러 역동성이 부족하고 안정 속에 침체된 상태가 나타남. 본 지역 유형에는 총 45개국(미국, 한국, 인도, 러시아, 에티오피아 등)
〈지역 유형 2〉 열린 선교지	이 지역은 법적 종교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사회적 반대나 정치적 제약이 거의 없으며, 세속화 영향도 비교적 약한 ‘최적의 선교 환경’을 가진 국가들임. 외부 박해도 적고 내부 세속화도 낮아, 복음 사역이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필드라고 할 수 있음. 주로 남반구 기독교 국가들이 이 지역 유형에 포함되며 총 29개국(필리핀, 쿠바, 모로코 등)
〈지역 유형 3〉 세속화 지역	해당 지역은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가장 높은 국가들이지만, 동시에 세속화와 탈종교화가 가장 심각하게 진행된 지역임. 높은 종교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전도 활동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며, 자유를 활용할 내적 동력 자체가 약화된 상태임. 서구 선진국들이 이 지역 유형에 다수 포함됨. 본 지역 유형에는 총 15개국(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덴마크 등)
〈지역 유형 4〉 역설적 부흥지 (종교 박해지역)	법적 종교의 자유가 가장 낮아, 대외적으로는 개신교 박해국 또는 제한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환경임. 그러나 실제 전도 현장에서는 정치적·사회적 제약과 반대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역설적 상황이 확인됨. 이러한 낮은 마찰 환경을 활용하여 전도 활동은 전체 지역 유형 중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짐. 본 지역 유형에는 총 3개국(베트남, 알제리, 이라크) *이해를 돕기 위해 이하 ‘종교 박해지역’으로 기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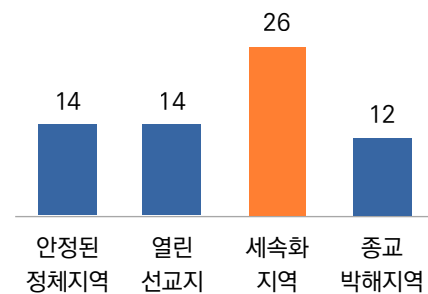
세계 기독교인 55%는 30대 이하 젊은 층!

- 세계 복음주의 교인의 연령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교인 과반(55%)이 30대 이하 젊은 층으로 집계됐다. 이를 한국교회와 비교하면 한국은 '30대 이하' 교인이 31%로, 절반에도 못미쳤고 '65세 이상' 시니어 비율은 세계 기독교인(1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33%였다.
- 한편, 세계 기독교인 연령 구성을 지역 유형별로 보면 '세속화 지역' 지역의 65세 이상 시니어 비율(26%)이 타 지역보다 2배가량 높아 고령화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교인 연령 비율 (%)



[그림] 지역 유형별 '65세 이상 시니어' 비율 (WEA 총회 회원, N=49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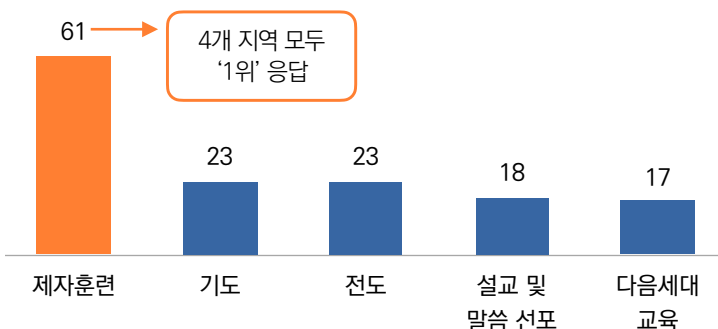
*한국 기독교인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년 국민 종교분포 및 종교현황, 2023.12.(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784명, 휴대전화 RDD, 2023.10.18.~11.01.) / 만 19세 미만 비율은 행정안전부 인구통계(2024년 말)의 일반국민 비율에 근거해 산출함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목회 사역의 최우선 과제, '제자훈련'이 4개 지역 모두 공통 1위!

- 세계 복음주의 리더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목회 사역 1위는 '제자훈련'(61%)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역이나 환경적 특성(4개 지역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독보적인 최우선 과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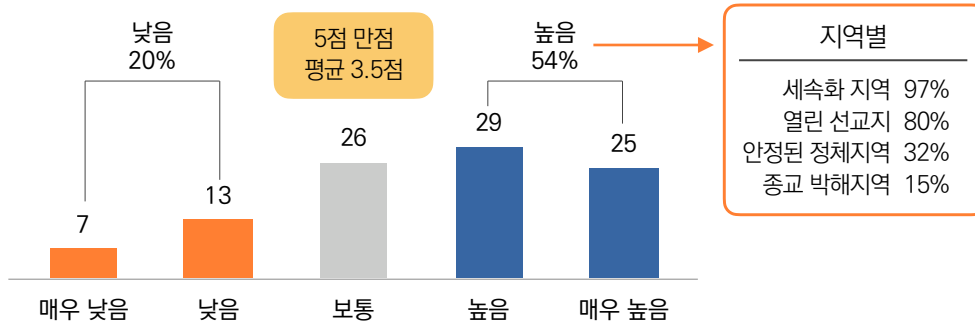
[그림] 가장 중요한 목회 사역 (WEA 총회 회원, 2순위 필수응답, N=494, %)



세계 사역지의 종교 자유 수준, ‘낮은 지역’ 20%!

- 세계 복음주의 리더들이 평가한 선교지의 종교 자유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5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높음’ 이상 응답은 54%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종교의 자유 수준이 낮은 지역은 20%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역 유형별로는 ‘세속화 지역’ 97%와 ‘종교 박해지역’ 15% 간에 ‘높음’ 응답 비율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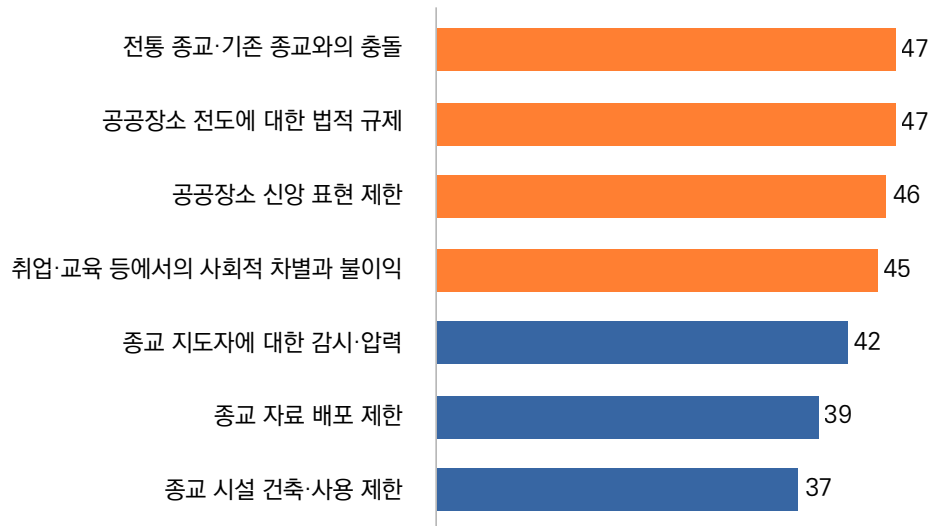
[그림] 종교의 자유 수준 평가 (WEA 총회 회원, N=494, %)



종교 자유 저해 요소, ‘종교 간 충돌’에서 ‘사회적 차별’까지 복합 작용!

- 종교의 자유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전통·기존 종교와의 충돌’(47%), ‘공공장소 전도에 대한 법적 규제’(47%), ‘공공장소 신앙 표현 제한’(46%), ‘취업·교육 등 사회적 차별’(45%) 등의 압박 요인이 비슷한 비율로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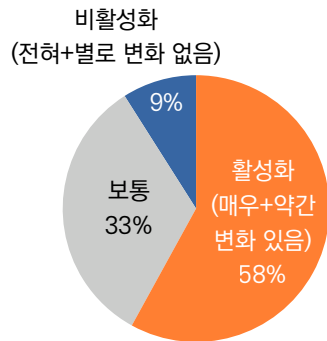
[그림] 종교 자유 저해 요소 (WEA 총회 회원, 상위 7개, N=49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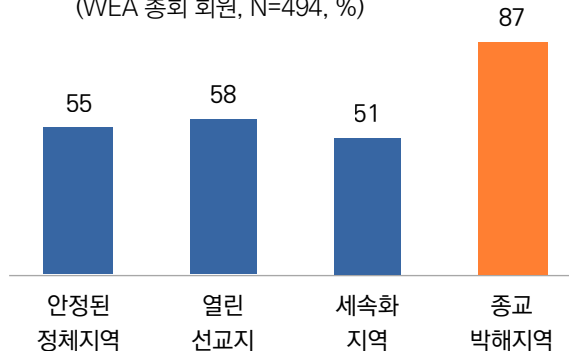
세계 전도 현장, 종교 박해지역에서 가장 활발!

- 사역지의 현재 전도 활성화 수준을 살펴본 결과, '활성화'(매우+약간 변화 있음) 비율은 58%로 절반을 웃돌았고, '비활성화'(전혀+별로 변화 없음)는 9%로 사역지 10곳 중 1곳꼴이었다.
- 특히 주목할 점은 종교 자유가 높은 '세속화 지역'(51%)보다 종교 자유가 낮은 '종교 박해지역'(87%)에서 전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사역지 전도 활성화 정도
(WEA 총회 회원, N=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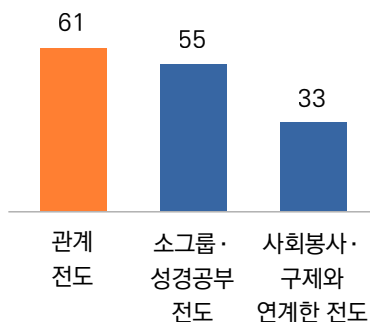
[그림] 지역 유형별 전도 '활성화'(매우+약간) 비율
(WEA 총회 회원, N=494, %)



전도의 최대 장벽, '재정·인력 부족'...지역별 장애요인 달라!

- 사역지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도 방식으로는 '관계 전도'(61%)와 '소그룹·성경공부 전도'(55%)가 주를 이뤘다.
- 한편 전도의 장애물은 '재정·인력 부족'이 전체 1위로 꼽혔으나, 지역별로는 '안정된 정체지역'은 '기존 종교 영향력'(55%), '열린 선교지'는 '재정·인력 부족'(40%), '세속화 지역'은 '세속화·탈종교화'(66%), '종교 박해지역'은 '종교 자유 제한'(98%) 등 각기 다른 핵심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주요 전도 방법 (WEA 총회 회원, 1+2순위, 상위 3개, N=494, %)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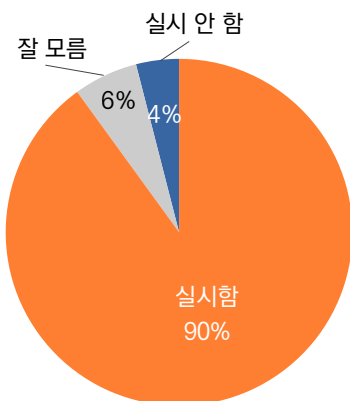
[그림] 지역 유형별 전도의 장애물(WEA 총회 회원, '매우+다소 방해된다' 비율*, 상위 4개, N=494, %)

	안정된 정체지역	열린 선교지	세속화 지역	종교 박해지역
1위	기존 종교의 강한 영향력 (55%)	재정·인력 부족 (40%)	세속화·탈종교화 (66%)	종교 자유 제한 (98%)
2위	재정·인력 부족 (50%)	교인들의 전도지 약화 (22%)	교인들의 전도지 약화 (42%)	사회·문화적 반대 (96%)
3위	사회·문화적 반대 (47%)	기존 종교의 강한 영향력 (8%)	사회·문화적 반대 (18%)	정치·법률적 제약 (94%)
4위	종교 자유 제한 (43%)	세속화·탈종교화 (4%)	기존 종교의 강한 영향력 (14%)	안전·보안 위협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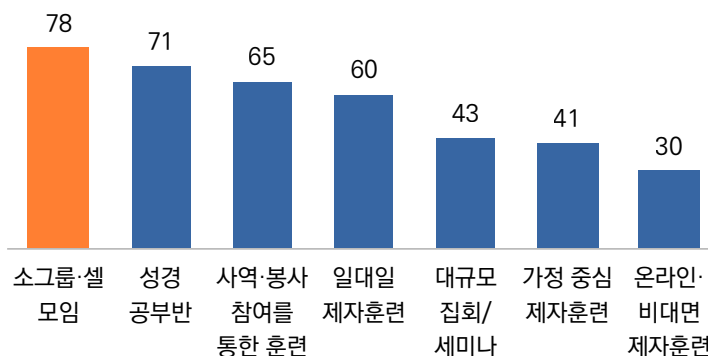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 10명 중 9명,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실시!’

- 세계 복음주의 리더가 속한 교회 10곳 중 9곳(90%)은 현재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제자훈련 방식으로는 ‘소그룹·셀 모임’(78%)과 ‘성경공부반’(71%)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사역·봉사 참여’(65%), ‘일대일 제자훈련’(60%) 등의 순이었다.

[그림] 제자훈련 실시 여부
(WEA 총회 회원, N=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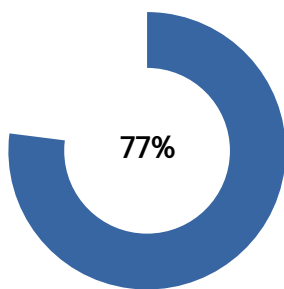
[그림] 제자훈련 방식 (제자훈련 실시하는 경우, 중복응답, 상위 7개, N=442, %)



세계 교회 지도자, ‘제자훈련으로 성도의 삶 변했다’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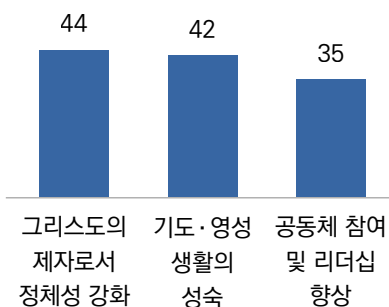
-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교회 리더의 77%는 ‘훈련을 통해 성도들의 삶에 실제 변화가 나타났다’고 응답했으며, 주요 성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체성 강화’(44%)와 ‘기도·영성 생활의 성숙’(42%)이 꼽혔다.

[그림] 제자훈련을 통한 성도 삶의 변화 경험
(제자훈련 실시하는 경우, ‘매우+약간 변화 있음’ 비율*)



*5점 척도

[그림] 제자훈련의 성과 (제자훈련을 통해 삶의 변화 경험한 성도 있는 경우, 1+2순위, 상위 3개, N=34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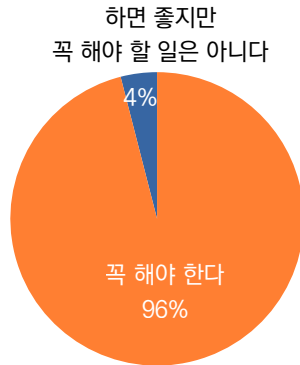
Note) 본 질문은 각각 다음과 같음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까?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난 성과는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주의 리더 대다수(96%), ‘사회 참여는 교회가 꼭 해야 할 일!’

- 교회의 사회 참여 필요성에 관해 묻은 결과, 응답자의 96%가 ‘꼭 해야 한다’고 응답해, 사실상 거의 모든 리더가 사회 참여를 교회의 선택적 활동 아닌 본질적 사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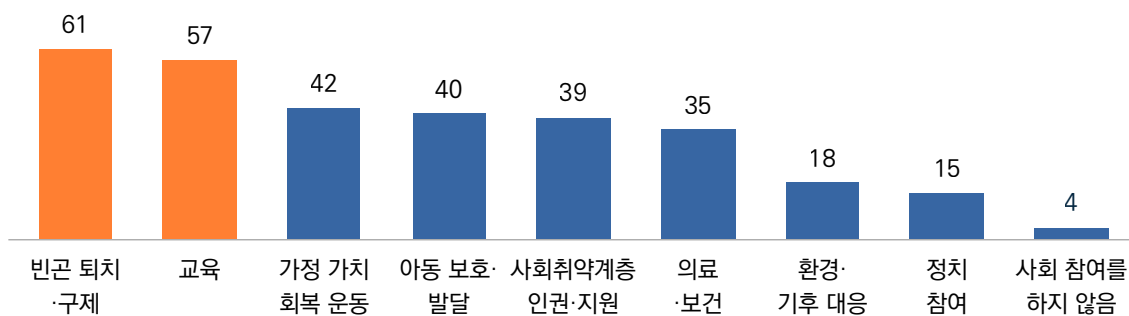
[그림] 교회의 사회 참여 필요성 (WEA 총회 회원, N=494)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사회 참여 활동, ‘구제’와 ‘교육’이 핵심 주축!

- 실제로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96%가 ‘사회 참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가장 활발한 분야는 ‘빈곤 퇴치·구제’(61%)와 ‘교육’(57%)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빈곤 퇴치·구제’와 ‘교육’이 TOP2 사역을 형성했다.

[그림] 현재 교회에서 참여하는 사회 참여 활동 (WEA 총회 회원, 중복응답, N=494, %)



이번호 요약

1. 세계 전도 현장, 종교 박해지역에서 가장 활발!

사역지의 현재 전도 활성화 수준을 살펴본 결과, '활성화'(매우+약간 변화 있음) 비율은 58%로 절반을 웃돌았다. 특히 종교 자유가 보장된 '세속화 지역'(51%)보다 종교 자유도가 낮은 '종교 박해지역'(87%)에서 전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2. 목회 사역의 최우선 과제, '제자훈련'이 4개 지역 모두 공통 1위!

세계 복음주의 리더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목회 사역 1위는 '제자훈련'(61%)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역이나 환경적 특성(4개 지역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최우선 과제로 나타났다.

3. 세계 교회 지도자, '제자훈련으로 성도의 삶 변했다' 77%!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교회 리더의 77%는 '훈련을 통해 성도들의 삶에 실제 변화가 나타났다'고 응답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한국 교회 전도의 새로운 방향 (대한기독교서회, 구병옥, 김남식, 김선일 저 외 12명)

관련 성경 구절

그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사도행전 8장 1절, 4절)

목회 적용점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현실은 환경이 전도의 결과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종교 자유가 보장된 세속화 지역의 전도 활성화 비율은 51%인 데 비해, 종교적 제약이 큰 박해지역에서는 87%에 달했다. 이는 전도의 성패는 외적 환경보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교회 공동체의 내적 활력에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교회도 전도의 어려움을 시대와 문화의 탓으로만 돌리기보다, 성도들이 일상에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고 관계 속에서 신앙을 나눌 수 있도록 전도 동력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 아울러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상황에 맞는 세밀한 전도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한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90%가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그 가운데 77%가 성도들의 실제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제자훈련은 단지 교회 프로그램 중 하나가 아니라,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갖고 기도와 영성,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과정이다. 한국교회는 전도와 제자훈련을 별개의 사역으로 나누지 않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세계 복음주의 리더의 96%가 사회참여를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인식한 것처럼, 구제와 봉사 등 이웃을 섬기는 실천까지 연결될 때 교회는 비로소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건강한 선교적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다.